

현재 사찰환경이 훼손되고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의 모든사찰이 내·외적으로 참해를 받고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불사리는 미명 아래 전통가람의 형태가 바뀌기 일쑤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것은 외부인으로서 진행되는 개발로 인한 피해다. 대부분 개발은 대규모로 진행되고 한번 삽질이 시작되면 집요하게 펼쳐져 사찰의 제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사찰환경 훼손위기 현장 진단

최근 이러한 개발이 두드러진 것은 환경이 강요되면서 비교적 환경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찰소유의 토지가 각종개발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발에 의한 사찰환경 훼손은 사찰과 무관한 대규모 군중을 모으게 되어 계속적인 환경파괴가 자행된다. 이는 사찰의 존립태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한국불교를 뿌리째 흔들어 버릴수 있어 이에대한 전불교도들의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외부 요인에 의한 사찰훼손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락시설 개발 △대형건물 건설 △무분별한 공공시설 건설을 들 수 있다. 그 현장을 들여다 본다.

와 골프장에 뿌려지는 농약분말로 훼손의 위기에 처해있다.

사찰주변의 위락시설개발은 이미 통도사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일주만에 '통도산타지아'라는 대규모 놀이시설이 들어서 전통사찰의 사경을 추락시키고 있다.

가장 흔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찰환경훼손으로 일주된 코앞에 고층아파트건립을 들 수 있다.

경기 남양주 봉영사는 입구에 건설예정인 19층높이의 아파트 건립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이 '아파트건립 불가'를 통보하자 건설사측이 "문화재와



“환경수호” 최근 환경이 강요되면서 비교적 환경보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찰 소유의 토지가 개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찰환경권' 보호를 위해 사부대중은 물론 환경단체, 지역주민이 개발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진은 범어사 입구에 건립중인 아파트 공사 저지에 나선 정관스님(당시 범어사 주지)의 참치시위 모습.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건설을 중단하는 관례를 남겼다.

공공시설 사찰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공공시설, 쓰레기폐기장 등 다양한 형태로 사찰환경이 훼손

‘개발우선’ 정책에 수행도량 ‘몸살’

위락시설 개발 대표적인 곳이 해인사이다. 해인사가 자리한 가야산의 중턱에 48만평규모의 골프장과 1만평 규모의 위락단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해인골프장은 91년부터 개발계획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문제가 '경북도의 허가과정은 적법하나 환경에 대한 국민정서의 함양이란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승인취소를 제기하면서 골프장건설지지 운동이 본격화 됐다. 현재 해인골프장 건설반대를 위해 해인총림, 지역주민, 환경단체, 학계에서 강력대응하고 있다.

해인골프장건설은 법보존할 해인사의 경관과 사적 침해가 우려되며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과 장경각(국보 제52호)이 골프장개발에 따른 온도 습도 풍향의 변화

선암사 경내지 아파트부지 강제수용 가야산 중턱에 골프장·위락시설 추진 심복사 인근 산업 폐기물 매립장 계획

1백m 이상 떨어져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건설사측이 주장하는 법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물 등의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백m 이내의 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해 법률전문가들은 1백m 규정은 최소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문화재에 피해가 예상되면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부산 선암사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주택공사가 선암사 경내지를 강제수용해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선암사는 '전통사찰 선암사 도량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건립을 위해 종교용지를 강제수용한 처사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며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건물 건립은 서울 봉은사에서 이루어졌으나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이 '전통사찰 근처에 고층빌딩 건축시 사찰

되고있다.

서울 회계사와 수원 청림암이 사찰입구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어서 사찰수행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수원 봉령사의 경우 사찰토지 5만15천평이 공설운동장건 설용지로 수용되어 대규모운동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봉령사는 비구니강원이 있어 공설운동장건립에 따른 수행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

평택 심복사는 사찰변경 2백m내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찰과 주민이 대책수립에 나서며 여천 흥국사가 궁전에서 배출한 각종 공해물질로 폐사가 우려되는 등 사찰환경 훼손은 전국 사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준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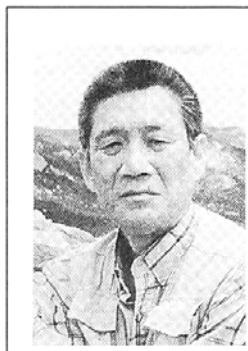
시론

힘차되 무례하지 말라

장발 단속에 걸려 명동 파출소에서 감제로 머리카락 잘리는 수모를 당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세대에 관한 글을 써야 하나.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나의 장발을 단속 하려는 세대 한 가운데에 정확하게 위치한다. 나 또한 내 아들의, 처참히 당하도록 길러 왔기마를 탄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는가?

다리 긴 아들의 앓음새

고등학교 졸업반인 아들은 키가 186센티, 몸무게는 88킬로그램 정도가 된다. 먹는 것을 보면 쇠고기 두근 정도는 한 자리에서 먹어치운다. 먹거리가 달라지면 체형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내 아들은 키가 나보다 10센티 가량 큰 셈이나, 체형이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형 체형이어서 다리가 유난히 길다. 체형이 달라지면 앓음새도 달라진다. 이렇게 긴 다리로는 책상 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어른들로부터 앓음새에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꾸중을 듣고는 한 다. 이게 공정한 일인가?



이 윤 기 (소설가·번역가)

나는 우리 젊은 이들의 당당한 태도와 엄정한 몸피를 보면서 우리 조상이 일본인을 '왜놈'이라고 불렀던 까닭을 비로소 이해한다. 이게 힘이

사항에 지나지 못한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워야 한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은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 기성세대에게는 섭섭한 일이었으나, 새 세대에 살아가야 할 세상은 훨씬 넓은 세상일 터이므로.

일본의 거리에서 유럽의 거리에서, 북미 대륙의 거리에서 한국 학생들끼리 나누는 한국어 듣게 되는 것은 이제 그리 생소한 일이 아니다. 한국 학생에게는 한가지 특징이 있다. '무례하게' 주장하는 언론이 바로 그 입으로, 어린 나이에 외국에 나가 토종 외국어를 공부하는 조기 유학생들을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것은 과연 공정한 일인가? 어찌라는 말인가? 탈선하는 조기 유학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탈선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는 무균실이 아니다.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데 불구하고 밖으로 내보내어 키워야 한다. 그리고 탈선 범위를 정하는 것도 다사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구세대의 잣대만으로 신세대를 재어 선악을 판단하고 죄를 주어서는 안된다. 신세대 '악'은 구세대 '선'의 한 상태일 때가 종종 있다.

지금 이 시점의 기성세대가 한가지 갖고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인가? 부자애이다. 기성세대는 부모들로부터 혹은 국가로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받던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늘었고 원출하며 우리 처녀들은 또 얼마나 당차고 아름다웠는가? 이런 젊은이들에게 젊어지우는 과소비 혐의에 대해 내게는 할말이 없다. 젊은이를 먹고 마시는 태도나 씹음이 만만치 않은 것을 두고 많은 어른들은 당신네들의 그 시절을 떠올리며 한심하게 여겨 마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50, 60대에 이른 분들의 청소년 시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백달러를 넘지 못했다. 지금도 그런가? 국민소득이 거품이 섞여있기는 하였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만달러를 넘었다고 공표한 시대 아닌가? 내가 보기에, 이 시대 젊은이를 돌보는 짜장면 한 그릇, 막걸리 한 사발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 요구에 따라 허리를 졸라매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기성세대가 가져 왔던, 필경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신세대 새로워야 한다

상당수의 기성세대들이, 그리고 국가가 신세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공부하는 환경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신세대는 먹거리에서부터 문화환경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투자를 받으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자라고 있다. 나는 구세대가 신세대가 획득한 이러한 강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신세대가 위로는 무례하고 아래로는 잔인해 보인다는 것이다. 희망하기로는, 당당하게 힘차게 살되, 무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신세대에게 이 한마디를 당부하고 싶다.

"뽕고로소 마는 트로포(힘차게,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농지가 대지로 변경 납세액 54억

조계종 범어사가 체납된 토지관련 세금 납부를 위해 총무원에 요청한 '경의지 매각'이 이미 7월 18일 승인(재처 제1178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지매각 승인은 8월 초까지도 총무원관계자들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고 발발하던 항목이다. 범어사 토지매각이 주목을 받는 것은 토지가 8천5백여평에 이르는 대규모로 대부분 부산 도심지의 노후주택에 위 치해있어 매각대금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납부를 위해 사찰토지를 매각해야하는'가 하는 한계상황속에 총무원의 처리여부에 따라 현 조계종의 부동산정책을 엿볼수 있어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이다.

범어사측은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총토세 8억원, 택지조과소유부담금 46억원등

절망 팔아 세금내는 범어사 속사정

총 54억원이 체납되었다"며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경의지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범어사의 토지관련 세금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택지조과소유부담금으로 조계종 소속 사찰에 부과된 택지조과금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택지조과금이란 대지가 2백평이상일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범어사의 경우 부산시가 거대화되면서 농지였던 경의지가 수익성높은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 매년 12억원에 이르는 택지조과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범어사측은 "수익성없이 세금만 부과하는 대지를 매각해 체납세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교계에서는 활용성높은 토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매각이라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범어사 대종과 이를 승인한 현 집행부에 감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토지와 관련 어떤 명분으로든 매각이후 중단재선이 유실했다는 평가는 내외부적으로 술하게 지적돼왔던 사안이다. 범어사 또한 사찰토지 관리를 소

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표적인으로 과거 정임 소임자들이 토지를 매각하고 되찾는 과정에서 '대지따로 건물주 따로'가 되어 일반적으로 범어사가 세금만 내는 토지가 허다하다. 또한 점유권과 소유권을 놓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도 있다. 심지어 세금이 부과되고 난 뒤에 사찰토지를 되찾는 등 토지관리상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총무원이 범어사 토지매각을 승인하면서 '토지처분금중 세금납부부분을 제외한 20%를 중단목적사업 대토기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전액 대토'로 했다. 또한 필지별로 매각때는 총무원에서 실무자가 참관해 토지매각 절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엔 매각승인이 난 토지중에는 지목이 대지뿐 아니라 내대지 유지등이 끼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토지매각과정에서 벗어날지도 모르는 잡음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염

경의지 8천여평 매각 결정... 토지관리 소홀 비판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항토만들”

기증용 **전통 속작옥기 “탄생”**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기증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생스럽다. 자궁에 가깝게 기본 나쁜 증상이 일어난다. 즉시 자궁양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속작옥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속작옥기에 앉으면 있어도 허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속작옥기의 요법으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속작옥기는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부인병, 냉·대하, 변비,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풍, 산후조리, 질수축작용, 염증 및 혈액순환촉진, 배가 냉한사람, 설사가 심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가슴 근살제거, 경년기장애 등 남성·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강화, 발기부전, 빈뇨, 잔뇨, 소변관란, 배뇨통 등

◎이상의 열거한 질병이 있는 분은 일단은 무조건 전통속작옥기를 10~15일간 사용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분이고 이 옥기를 사용하면 고칠 수 있으리니 하는 확신과 함께 그 효능을 확실하게 느끼실 것이며 살인 화력이 가려져 백인화이라고 해도 아마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차원에서 일주일에 2~3번씩 가끔 사용하시면 또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월경 불순과 배뇨통 증상에 옥기는 배뇨통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꼭 받아주십시오 자궁을 냉한 것으로 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주면서 청결하게 소독해주고 소변시켜주어 자궁을 온화하게 해주기 때문에 임신행복에 유산하는 일이 드물며, 집에서 산모 스스로 산후조리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을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가까운 지회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며 단, 미개설 지역의 경우 지회가 개설될 때까지 구입신청을 받습니다.

전통 속작옥기란?

허복장기의 질환인 자궁병, 냉·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료의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요법이 한국에서 동시에 발휘되도록 집약시켜 이를 특정부위에 집중적으로 쬐어서 질환의 치료 예방 효과가 크고 빠르게 개발된 가정용 좌욕 쬐음 요법기입니다.

치료원리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안에 약속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 및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심달력이 삼위일체로 합쳐져, 인체조직 파괴의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서 피부모공과 내분비선공을 열어 피부 호흡 및 호르몬분비를 촉진함으로써 대사기능 증진과 혈액순환을 좋게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균균을 살균시켜 질병을 치유시킵니다.

“뜨겁지 않고 흥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속뜸기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속뜸기”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주위에 오랫동안 병을 낫고자 병방법을 다 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언제까지나?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속뜸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속뜸으로 다시 살아나실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속뜸 건강요법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속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인면마비, 만성두통, 편두통,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배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질,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 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쇠약, 경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란증, 피부미용, 시력증진, 인태르스제생질, 술 남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강화, 각종 성인병예방 등

전국지회소집 (미개설지역)

전국 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병문 및 전희상임

제초점: 바라밀 건강연구원
·분회: (지회상임의원)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0335)34-9490, 39-1906/이전(0342)706-3060
·분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층5호)
(대전포교계점: 보문포교원(한양·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